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홍수에 비유된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떠내려간다. 지푸라기도 돌맹이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황소까지 떠내려간다. 어쩌면 자유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찬성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개혁의 촉매제'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느슨해진 한·미간의 인보체계를 경제적 끈으로 엮어내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관세철폐의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형식 내용도 중요하지만 밑에 숨어있는 개방의 잠재의의 또한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은 개방의 폭이 한국 측에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불평등한 체제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육, 의료 등 핵심적인 서비스 분야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분야에는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FTA, 기회 혹은 화근**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말한다. 또 법률시장 개방도 단계적으로 한다지만 결국 미국의 뒷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섬유, IT, 디지털TV, 부품 소재 부문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은 농수산물, 제약부문에 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화학, 가죽, 모피, 기계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자동차, 철강, 전자, 신발 등에서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미국에 458억 달러를 수

출하였는데 미국시장 점유율이 2000년 3.3%에서 2006년에는 2.5%로 줄어들었다. 한편 중국은 2000년 8.6%에서 2006년 15.5%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4.9% 관세부담이 없어지고 수출품통관절차가 48시간이내 끝나도록 되어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에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기술력만 있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황금의 기회'인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의 기초가 있는가 문제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대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가에 달려있다.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한국의 경제가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남미가 미국에 종속되었듯이 우리도 종속관계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비준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하튼 이번 협정을 보수세력은 잘린일로 평가하고 진보세력은 비난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비준과정이 자유 무역협정체결만큼 어려운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의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도 국회비준이 최대변수이다. 1994년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 무역협정을 맺었지만 개방을 경제활동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또 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이 없어 멕시코의 경제는 나아진 것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주는 것이고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고 잘못 적용하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태고종의 세계화를 기대한다**

태고종이 세계를 향한 응시의 날개를 폈다. 최근 태고종이 아메리카 유럽 종무원을 개설하고 미국 현지에서 학문 연구와 포교에 매진해 온 종매 스님을 종무원장으로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 캐나다인 오스트리아인 등 외국인 사비와 사미니 수계식도 가짐으로 명실공히 세계화의 디딤돌을 놓았다.

태고종의 세계화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 10개 이상의 종단 사찰이 지어졌고 종도들 또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종무원을 설치하고 종단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종도 개인의 능력에 의한 해외 포교의 틀을 종단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대거 해외 포교에 뛰어들어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태고종이 아메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한국 불교의 해외 활동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고종의 세계화는 초종파적인 원력으로 추진되어 조계종이 겪어온 시행착오를 벤치마킹 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태고종의 세계화는 태고종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는데서 성공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전통의식 등의 종단 파워를 문화포교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태고종의 해외 포교 마당은 넓로 넓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고의 상담가는 최고의 포교사**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바로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항상 열려 있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받아들였고 중생들의 아픔을 가장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셨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불평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고 욕설을 퍼부어도 욕설로 그와 맞서지 않았다. 찾아와 밥을 뜯거나 자신의 신상에 대해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논리 정연한 말씀으로 감복 시켰고 다정다감한 언술로 깨우침을 전했다. 부처님의 상담은 모든 중생들에게 안온함을 전하는 최고의 명약이기도 했다.

오늘날 스님들의 상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수행자에게 상담이 필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포교 현장에 나서는 수행자라면 상담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천에 뛰어들어야 한다. 부처님이 일생 길에서 상담을 하며 중생을 교화 했듯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앙 승가대 학인 스님들에게 전문 상담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내에 교육장을 설치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호응하여 학인 스님 1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으니 반갑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 학인 스님들이 부처님의 상담기법을 제대로 배워 포교 현장으로 나온다면 불교의 미래는 매우 밝아질 것이다. 이 찾아가는 교육의 성공을 기원한다.

**'종교자유' 칼럼**

**6. 서구의 종교 인권의식 타산지석 삼아야**

박광서 (서경대 물리학과 교수)

2003년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이 상호 지켜져야 한다는 이른바 '세속주의(secularism)'에 충실하기 위해 공립학교와 직장에서 교사나 공무원들의 hijab(이슬람 여성의 머리 스퀘프)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2004년에는 영국 정부가 종교적 증오 유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국은 최대 7년 징역형까지 가할 수 있는 '인종 증오 유발 금지법'을 이미 1986년에 제정한 바 있는데,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한 적대 또는 차별행위의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종교적 증오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코로 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종교중립에 대한 서구인들의 엄격한 태도는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해할 것도 같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치러진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특히 종교전쟁이 그 어떤 전쟁보다 비참하다는 사실은 유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종교전쟁인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 시작되어 1270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치러졌다. 1099년 예루살렘에 입성한 십자군은 무슬림과 유대인까지 남김없이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웠다. 이때 십자군 기사들은 "우리는 말을 탄 채 무릎 높이까지 올라가는 피의 강을 지나갔다. 술

로몬 사원은 오랫동안 이단자들로 부터 불경스러운 모독을 당해왔으니 이단자들의 피로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훌륭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며 살육의 환희에 울부짖고, 심지어 인육을 요리해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 광기어린 잔혹성을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지지만 그 당시 그들에겐 얼마나 거룩한 전쟁이었겠는가. 1572년 프랑스에서 신교도 수천 명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룻밤 사이에 무자비하게 폐



종교개혁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제도적으로 뿌려 내리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789년 혁명 때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하였고,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

경 대신 법전에 손을 얹는 것도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근거한다. 종교전쟁의 그 처절한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확보된 셈이다. 오늘날 서구에서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의 피를 통해 얻어진 것

이다. 이기에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자유이다.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한 종교를 선택할 권리만의 문제가 아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양심의 자유이자 물려줄 수 없는 인권이었던 것이다. 인권학자들도 근대 이후의 역사는 사실상 '인권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역사의 현장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특히 서구문명의 발달사가

**종교자유·정교분리 서구인들의 뼈아픈 경험의 산물**

죽음을 당한 '성바돌로매의 대학살' 사건도 인류 진화사 중의 하나이다. 중세 이후 유럽을 휩쓴 종교전쟁의 결정판으로 역사상 제일 치열했던 종교전쟁은 신·구교 간의 소위 '30년 전쟁(1618-1648)'이었다. 이 파국적인 전쟁은 유럽 대륙 거의 전역에서 벌어졌으며, 종전과 함께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유럽의 종교 유혈권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종교자유와 정교분리가

이기에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자유이다.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한 종교를 선택할 권리만의 문제가 아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양심의 자유이자 물려줄 수 없는 인권이었던 것이다. 인권학자들도 근대 이후의 역사는 사실상 '인권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역사의 현장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특히 서구문명의 발달사가

신교사들이 서구종교 우월주의에 기반해 전통적 신앙을 비난하고 말살하고자 가르쳐준 대로 너무나도 철저히 믿고 따르는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인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라고 한다. 지구상의 기독교 중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 다음으로 배타성과 공격성이 강한 배경이며 우리 사회의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가지지 않는 이유이다.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옥천대성사 예철스님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DVR 모니터 250만원 (설치비포함)  
카메라 4대

전화문의 043-732-5560  
011-9422-8453

작품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심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석탑·석등·동물상·인물상·목불조각·수미단·조형물조각·옥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